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직장인 업무상 정신적 손해 예방사업에 지원금

문화·관광 문화·예술 창조산업 가치 키우는 4대 비전 제시
다양한 프로젝트로 친환경·지속가능한 관광 실현

사회·복지 조식 무상급식 늘려 '취약계층 지원·지역사회 역량강화'
통합 돌봄서비스센터 '바르셀로나 꾸이다' 개관

행재정·교육 민간 노하우 활용해 공립 미술관 집객력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행복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경·안전

시민참여로 미래 25년 폐기물 관리대책 수립
취약계층 거주지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법 채택 '눈앞'
일터 떠날 권리 보장 등 폭염대책 시행

도시교통

공유차량도 택시처럼 운행권 의무화
엄격한 차량 운행제한으로 대기질 개선
전기차 공유서비스 도입 성공적...인프라 확충 기대

도시계획·주택 안전·다양·스마트한 도시 만드는 23가지 실행계획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이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직장인 업무상 정신적 손해 예방사업에 지원금

정신건강 취약 직종 위주...근로환경·조직문화 개선에 주력

호주 빅토리아주 / 산업·경제

호주 빅토리아주는 직장 근로자의 업무상 정신적 손해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안전한 직장, 건강한 직장'(WorkSafe, WorkWell)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시행 중임.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은 주로 정신건강 취약 직종인 사회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직장문화·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사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펀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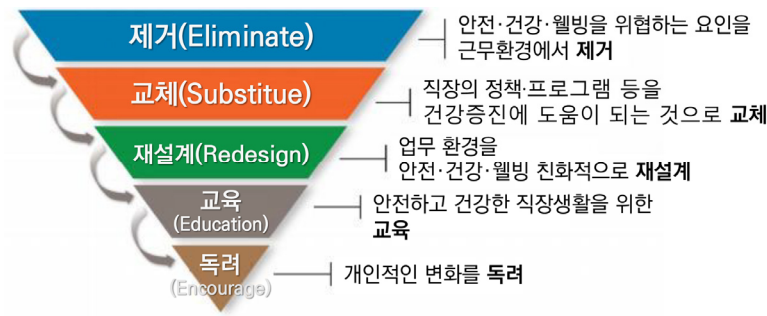
배경

- 업무상재해 중 정신적 손해는 신체적 손해보다 발생률은 낮지만, 그 영향은 훨씬 커
 - 정신적 손해는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도 크지만, 직장에도 직접적인 경제적·비경제적 피해를 줌
 - 예를 들어, 전체 산재보상 중간청구 금액의 중위값은 8,700호주달러(740만 원)이지만, 정신적 손해의 중위값은 2만 2,200호주달러(1,890만 원)로 약 2.5배
 - 또한, 신체적 손해에 따른 업무중단은 평균 5.3주지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업무중단은 13.8주
 - 업무 관련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연간 생산성 손실이 109억 호주달러(9,265억 원)로 추산
 - 정신적 손해는 정신적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손해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음
- 정신적 손해에 따른 업무상재해 보상 청구 비율은 전체의 6%
 - 호주 산업안전청에 따르면, 2013~2017년 호주 전체에서 총 7,140건의 업무 관련 정신적 손해에 따른 산재보상 청구가 있었음
 - 정신적 손해의 산재보상 청구가 많은 직종은 소방·경찰 등 응급서비스 분야가 9%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교사(8%), 보건·사회복지 종사자(6%) 순
 - 신체적 손해와 달리 남성(42%)보다 여성(58%)의 정신적 손해 비율이 높으며, 이는 교육·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 여성 종사율이 높은 때문
 - 정신적 손해의 종류로는 불안장애와 우울증(단독 혹은 결합)이 4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업무 스트레스 장애(37%)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2%) 순

- 빅토리아주의 정신적 손해 산재보상 청구율은 11%로, 호주 전체 평균의 2배
 -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 산업안전부는 ‘산업안전전략 2030’(WorkSafe 2030)을 수립하며 정신적 손해의 예방과 사전대응책 강구에 주력
 - 특히, 정신적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을 중요시하고, 이를 위해 ‘안전한 직장, 건강한 직장’(이하 ‘건강한 직장’) 프로그램을 도입
 - 1,700만 호주달러(14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주요 내용

- 업무상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를 줄이기 위한 ‘건강한 직장’ 프로그램
 - 직장 안전규제 준수도 제고, 직장문화 개선, 업무스트레스 감소, 직장 동료 간 인간관계 개선(따돌림 예방 등)을 바탕으로 직장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 ‘건강한 직장’의 주요 프로그램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음
 - 건강한 직장 툴킷: WorkWell Toolkit
 - 긍정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데 도움되는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 건강한 직장 정신건강 개선 펀드: WorkWell Mental Health Improvement Fund
 -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꾸어 정신건강과 웰빙을 촉진하거나 취약 근로계층의 정신적 손해를 방지하는 사업을 선정해 재정지원
 - 건강한 직장 배움 네트워크: WorkWell Learning Networks
 - 산업 단체, 고용주 연합회, 근로자 대표 등이 산업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정신적으로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데에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에 재정을 지원
- 이 중 ‘건강한 직장 정신건강 개선 펀드’(이하 ‘정신건강 펀드’)가 주요 프로그램
 - 산업계, 근로자·지역사회 단체 등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
 -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2차 연도 사업이 진행 중
 -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근무환경 통제 위계’(Total Worker Health Hierarchy of Controls) 모형에 근거해 다음 3가지 차원에서 직장문화의 변화를 유도
 - 근로자 개인 차원: 관리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정신건강의 의식·지식·기술·태도 제고
 - 직장 관행 차원: 직장 건강, 문화, 인사관리, 정신건강 분야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그림 1]에서 업무 재설계 단계)
 - 직장 문화 차원: 조직 문화, 건강과 안전 관련 문화, 그리고 지도력 개선([그림 1]에서 ‘제거’와 ‘교체’ 단계)



[그림 1]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근무환경 통제 위계 모형

- 업무상 정신적 손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조직적·문화적 차원의 문제에 우선 집중
 -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요인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 가능
 - 1) 물리적 환경 요인: 위험한 작업장 환경(공기 청정도, 소음 수준, 고온, 위험한 기계 등)은 근로자의 안락과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를 유발
 - 2) 조직 요인: 업무량, 업무 기한, 인적·물적 지원, 동료와의 관계, 주어진 역할의 명확성, 직장 변화를 위한 근로자의 관여도, 인정과 보상, 정의롭고 공평한 조직 운영(Organisational Justice)은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
 - 3) 개인적 요인: 장애 여부나 나이의 적고 많음 등 근로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같은 위험요인에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음
 - 정신건강 편드는 이 3가지 요인에 대응하는 모든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로자 교육·의식개선 사업보다 조직문화·업무관행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 현재 6개 단체가 정신건강 편드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오스트레일리안 슈퍼(Australian Super): 호주 퇴직 연금 운용 기관으로 대중교통 분야 장년층 근로자의 건강과 웰빙 보호·증진을 위한 조직 정책·문화개선 시범사업 운영
 - 지역사회 및 공공서비스 노동조합(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 보건, 복지, 지역사회 서비스 등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기 쉬운 대인 서비스 근로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기술·지식을 제공하는 자료 개발
 - 크로스 야라 파트너십(Cross Yarra Partnership):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RMIT)과 함께 건설 분야 직장에서 고립·소외를 줄이고, 근로자 간 상호 연계와 존중감 향상, 직장 소속감을 제고하는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 페닌슐라 헬스(Peninsula Health): 빅토리아주 보건서비스를 대표하는 컨소시엄으로 보건서비스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정신적 손해를 예방·감소하기 위한 시범사업 운영
 - 새로운 직장동료 지원 프로그램(Peer Support Program) 개발, 새로운 교대제 시범사업, 직원 휴게시설(Sensory Rooms)이 트라우마의 영향에 미치는 요인 연구 등 진행
- 프리벤션 유나이티드(Prevention United):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의 업무 상황을 관찰하여 업무환경 개선
- 스마일링 마인드(Smiling Mind): 빅토리아주 초등학교 교장·교감 등 장년층 교사의 정신건강과 웰빙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문화·분위기 개선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 펀드는 광범위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 중
 - 특정한 기업이나 단체를 위한 사업보다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당 최소 25만 호주달러(2억 1천만 원)에서 최대 200만 호주달러(16억 8천만 원)를 최대 3년까지 지원

<https://www.premier.vic.gov.au/backing-those-workers-who-support-us/>

<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system/files/documents/1702/work-related-mental-disorders-profile.pdf>

<https://prod.wsvdigital.com.au/sites/default/files/2019-04/ISBN-Worksafe-2030-everyone-every-workplace-2019-04.pdf>

<https://prod.wsvdigital.com.au/sites/default/files/2018-10/ISBN-Workwell-mental-health-improvement-fund-rd2-guidelines.pdf>

<https://www.workwell.vic.gov.au/workwell-learning-networks>

정 용 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

문화·예술 창조산업 가치 키우는 4대 비전 제시

영국 런던시 / 문화·관광

영국 런던시는 런던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예술 창조산업이 그 가치를 유지·발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4대 비전을 제시함. 또한, 시민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창조산업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수립

배경

- 런던 경제에서 비중이 큰 문화·예술 창조산업의 장기적인 육성·유지전략 마련
 - 런던 전체 일자리 가운데 1/6은 문화·예술 창조산업 분야이며, 성장세가 가파름
 - 런던의 문화·예술 창조산업은 연간 47억 파운드(7조 5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2009~2014년 4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
 - 런던 전체 산업 분야 중 창조산업이 약 30%를 차지
 - AI(인공지능) 등의 자동화가 진행되는 산업구조 속에서 창조산업 분야는 다른 분야에 견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성이 87%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
 - 시정부는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 문화·예술 창조산업을 육성·유지하기 위한 4가지 비전과 실천 전략을 제시

주요 내용

- 런던시 문화·예술 창조산업 4대 비전은 다음과 같음
 - 1) 러브 런던(Love London), 2) 문화와 착한 성장(Culture and Good Growth), 3) 창조적 시민(Creative Londoners), 4) 세계적 도시(World City)
- 1) 러브 런던
 - 더 많은 시민이 삶 속에서 가깝게(doorstep) 문화를 경험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 시민이 각자 삶의 범위 안에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
 - 자치구 문화 경진대회(London Borough of Culture Competition)를 개최해 지역의 문화적·창조적 아이디어를 육성하고 새로운 지역주민 커뮤니티를 형성
 - 문화씨앗 펀드(Culture Seeds Fund)를 이용해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창조적 활동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보태주기 위해 노력

- 청년 런던너 펀드(Young Londoner Fund)로 청년의 창조적 활동을 지원
- 시민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축제 기획(새해맞이 불꽃놀이, 템즈강 축제(Totally Thames), 노팅힐 카니발(Notting Hill Carnival) 등)

○ 2) 문화와 착한 성장

- 두 번째 비전은 런던의 문화·예술 공간을 지원하고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배경: 런던 내 문화·예술공간과 사업체가 줄어들 위험성
 - 인구과밀 현상에 따라 런던의 문화·예술적 장소성이 훼손될 우려 확인
 - 지난 10년간 음악 관련 일자리의 35%, 성소수자 관련 상점·일자리의 58%가 사라졌고, 많은 예술가와 소규모 창조산업 사업체가 떠나야 할 처지에 놓임
- 런던 문화기반시설 육성계획(Cultural Infrastructure Plan)을 시행해 창조산업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공간이 유지되도록 도움
- 700만 파운드(105억 원)의 예산으로 '창조산업 존'(Creative Enterprise Zones)을 도시 곳곳에 구축
 - 문화·예술인이 싼값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기술 교육 등 지원

○ 3) 창조적 시민

- 세 번째 비전은 런던 창조산업 분야의 다양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목적
- 시정부는 창조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투자 정책을 펼치는 중
 - 학생들이 런던이라는 도시 자체를 교실로 삼아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도입
 - 음악교육 수업비, 음악회 관람 비용 등을 지원하는 펀드, 창조산업 기술 훈련과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돕는 펀드 등을 꾸려 창조인재 육성을 지원

○ 4) 세계적 도시

- 세계 속에서 런던이 지닌 창조적 가치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
- 창조산업 분야에서 런던이 가진 세계적 위상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열린 런던(London is Open)을 강조하는 사디크 칸(Sadiq Khan) 런던시장은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가 이루어지면 창조산업 분야에서 10억 파운드(1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증발할 것을 경고
 - '런던 패션위크'(London Fashion Week)를 지속 지원하고, 해마다 10만 명이 넘게 찾아오는 관련 분야 유학생을 위한 정책을 유지

그 외 문화·예술 관련 정책

- 칸 시장은 문화·예술 창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행할 것을 약속
 - 지역 문화에 투자하여 지역사회 건설·강화에 이바지
 - 주요 문화 프로그램, 축제·행사 등을 바탕으로 런던 시민을 하나되게 할 것
 - 런던에 있는 여러 박물관을 지원
 - 문화·예술이 시민의 건강과 복지에 도움이 됨을 홍보
 -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를 우선하는 체계를 만들고, 기존의 문화시설을 보호
 - 문화·예술이 창조되는 작업공간을 보호하며, 특히 예술가에게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것
 - 주요 문화 기반시설의 통합 프로젝트를 지원
 - 고품질의 디자인, 건축, 공공미술을 지원
 - 런던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
 - 환경친화적이고 깨끗한 런던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기업, 이해당사자, 문화전문가 등과 협력

<https://www.london.gov.uk/get-involved/culture-strategy-london>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launches-new-culture-strategy>

정 기 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다양한 프로젝트로 친환경·지속가능한 관광 실현

이탈리아 / 문화·관광

관광산업이 GDP에서 적지 않은 비중(13%)를 차지하는 이탈리아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시민단체가 협력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음. 관광버스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대신 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더 좋은 관광 경험·환경을 제공할 방법을 앞다퉀 모색 중

배경: 관광객 증가의 명암

-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탈리아를 찾는 관광객 꾸준히 늘어
 -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2018년 1억 1,340만 명의 관광객이 이탈리아를 찾음
 - 로마,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와 같은 대도시는 물론 마테라, 친퀘테레, 피엔차 등의 소도시에도 이르기까지 매년 관광객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 관광객 증가는 관광업 종사자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생태·환경에는 적잖은 피해
 -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오염이 환경에 얼마나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지를 직·간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익히 알고 있는 만큼, 적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관광산업이 GDP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탈리아는 관광산업과 환경보호 사이의 모순에 많은 고민
 - 이탈리아는 관광산업이 GDP의 13%를 차지해, 다른 유럽 국가(평균 10.3%)보다 경제적 기여도가 큰 편(2017년 기준)
 - 관광의 경제적 가치도 중시하면서 환경문제와 관련해 국제 언론, 외교 관계, 환경단체의 목소리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

주요 내용

- 지자체 중심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
 - 로마·밀라노·피렌체 등의 대도시는 수년 전부터 관광버스 출입을 제한
 - 이후 관광버스의 도심 진입허가 비용을 부과하였으며, 2019년에는 그 비용을 1,000% 인상
 - 인상 결과 관광버스의 도심 진입허가 신청이 급감하였으며, 교통체증과 스모그도 크게 개선

- 또한, EU(유럽연합)에서 배정받은 관련 기금을 활용해 환경친화적·지속가능한 관광을 가능케 하는 스타트업 공모 등을 지역별로 활발하게 추진 중
- 이탈리아 통계청(iSTAT)도 최근 관광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역별·유형별 해결책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
 - 로마시는 관광버스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대신 자전거 이용 확대 방안을 모색
 - 도시 전역에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조성
 - 리구리아주는 환경에 저촉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는 혁신적 방법을 공모하고 자금을 지원
 - 이탈리아 경제부 산하의 국가적 투자·개발 기관인 인비탈리아(Invitalia)는 지성을 발휘해 보존해야 할 유산으로 아말피 해안을 선정하고 2,940만 유로(391억 원)의 예산을 배정
 - 41.6%의 구릉지와 35.2%의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국토의 특성을 살려 자전거 여행길을 조성
 - 길을 따라 있는 식당·숙박업소의 부흥을 기대 중이며, ‘관광 - 산악’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캠퍼스도 개설
 -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이탈리아 해안 전역의 물의 오염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오염이 가장 적은 해변을 선택하도록 유도

<https://www.istat.it/it/files//2019/03/Principali-risultati-e-nota-metodologica.pdf>

<https://www.lettera43.it/it/articoli/cronaca/2019/04/02/classifica-turismo-citta-italiane-2019/230795/>

<https://www.ilgiunco.net/2019/03/19/tre-progetti-per-lambiente-per-pulire-il-mare-ed-eliminare-la-plastica-così-si-rilancia-il-turismo-sostenibile/>

<http://www.termitoday.it/attualita/eumbria-fondi-europei-sviluppo-rurale-bandi-gal-umbria.html>

<https://www.regione.liguria.it/area-stampa/archivio-comunicati-stampa-della-giunta/item/21549-turismo-presentato-a-savona-il-bando-da-700-mila-euro-per-servizi-turistici-innovativi.html>

<https://www.regione.liguria.it/area-stampa/archivio-comunicati-stampa-della-giunta/item/21361-convegno-turismo-sostenibile-sanremo.html>

<https://www.comune.roma.it/web/it/notizia/bus-turistici-stretta-sui-controlli-oltre-tremila-sanzioni-per-irregolarita.page>

<https://www.comune.roma.it/web/it/notizia.page?contentId=NWS242121>

http://www.ontit.it/opencms/opencms/ont/it/stampa/in_evidenza/WTTC_in_crescita_il_contributo_del_turismo_al_PIL

<https://www.invitalia.it/chi-siamo/area-media/notizie-e-comunicati-stampa/turismo-invitalia-e-costa-d-amalfi-investono-29-4-milioni>

https://www.ilmattino.it/napoli/cronaca/app_mare_campania_arpac-4403197.html

조식 무상급식 늘려 ‘취약계층 지원·지역사회 역량강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 사회·복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상당수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아동이 조식을 거르고 등교하는 문제에 대응하여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확대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중학교까지 조식을 제공하는 한편, 영양과 위생은 물론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까지 고려한 급식 메뉴를 개발

배경

- 취약계층 아동 지원과 영양 개선을 바탕으로 한 학습능력 향상이 목표
 - 약 30%의 아동이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조식을 거르고 등교한다는 연구결과 나와
 - 상당수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아동이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
 - 주정부는 2018년에 우유·녹색콩 등 제한적인 메뉴의 무상급식을 시작했지만, 올해 크게 확대 개편

주요 내용

- 취학 아동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치원과 중학교까지 대상 확대
 - 영양, 건강, 섭취 안전성, 포장 안전성, 다양성, 지역사회 역량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낵 또는 한 끼 식사 형태로 조식 제공
 - 방부제, 식염료 등이 포함된 음식을 배제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여 아동의 영양흡수 개선과 건강한 신체적 발달은 물론 학습능력 향상까지 도모
 - 조식 제공 외에, 청결하고 건강한 식습관 개선과 보건교육 등의 활동도 지원
 - 유치원·중학교까지 조식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확보
 - 관내 모든 초등학교(375개소), 유치원 75개소, 중학교 9개소에 조식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연간 예산 3,240억 루피아(262억 원)를 배정
 - 아동 1인당 한 끼 예산은 10,900루피아(880원)로, 영양·식감·지역사회 역량을 고려해 개발한 29개의 메뉴를 매일 돌아가며 제공
- 지역사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과 식기류 등을 사용해 지역경제에 이바지
 - 각 학교위원회가 주정부 예산을 직접 집행
 - 자카르타 교육국, 보건국, 식약관리국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적정 칼로리에 부합하는 메뉴를 각 학교위원회에 권고

취학 아동 추가 급식 프로그램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19년 9호)

<https://wartakota.tribunnews.com/2019/04/05/tinjau-program-roti-dan-susu-siswa-sd-gubernur-anies-minta-dipanggil-paman?page=all>

<https://wartakota.tribunnews.com/2019/03/27/pemprov-dki-gelontorkan-rp-324-miliar-untuk-program-makanan-tambahan-untuk-anak-sekolah>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9/04/05/12401691/30-persen-pelajar-tak- sempat-sarapan-dki-berikan-makanan-tambahan>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4/05/jakarta-provides-free-breakfasts-for-schoolkids.html>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통합 돌봄서비스센터 ‘바르셀로나 꾸이다’ 개관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 사회·복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는 돌봄을 공공의 영역에서 품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아동은 물론 의존이 필요한 성인,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인력·가족 등 돌봄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의 도시’(Ciutat Cuidadora)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관련 서비스 제공 공간이자 정보 교환의 장인 통합 돌봄서비스센터 ‘바르셀로나 꾸이다’(Barcelona Cuida)를 지난 4월 개관

배경과 목적

- 돌봄은 사회재생산의 문제로,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필요
 - 돌봄 등 사회재생산에 필요한 일은 여전히 음지에서 이루어지며, 불평등과 차별의 대물림을 만들어내는 대표적 영역 중 하나
 - 바르셀로나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의 민주화를 위한 조치 2017~2020’ 계획을 수립
 - 위 계획을 바탕으로 ‘돌봄의 도시’ 프로그램을 시작
 - 사회 전체의 삶과 행복 유지에 여성의 공헌이 컸음을 인정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돌봄의 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실행계획을 추진
- ‘돌봄의 민주화를 위한 조치 2017~2020’의 두 개의 축
 - 1)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
 - 목적: 돌봄의 가치 인식, 돌봄이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
 - 2)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 목적: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사회화, 공공 관리의 사회화, 시장의 사회화, 사회적 연대 경제의 사회화
- 통합 돌봄서비스센터 ‘바르셀로나 꾸이다’를 개관해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
 - ‘돌봄의 도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공간이자 관련 종사자·참여자의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
 - 2019년 4월 10일 개관



[그림 1] '바르셀로나 꾸이다' 내 프로그램 진행 모습

주요 내용

- '돌봄의 도시' 프로그램은 돌봄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제공 대상을 아동, 청소년, 의존이 필요한 성인, 노인, 돌봄 담당자 또는 가족, 전문 돌봄 인력, 일반시민으로 분류

[표 1] 돌봄 참여 주체별 주요 지원 내용

돌봄 참여 주체	주요 지원 내용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교육정보 및 상담 포털서비스 '에스폴라 브레솔' • 3세 미만 유아의 가족을 위한 놀이·사교의 공간 '에스파시오 파밀리아레스' • 영아의 가족들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만남과 정보 교환 프로그램 '이제 우리는 아기가 있어요'(Ja tenim un fill) • 학교 운영시간 이외 시간에 지역의 어린이·청소년과 가족에게 운동장을 개방하는 프로그램 •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보호자(부모나 교사)를 위한 정보제공, 동행, 교육, 지도 서비스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센터'(Centre per a famílies amb adolescents)
의존이 필요한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아동, 청소년, 성인에게 양질의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의 직장·가정·개인생활 간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너를 위한 시간'(Tems per a tu) • 기본적인 영양 섭취를 보장하기 위해 균형 잡힌 건강식을 수혜자의 가정에 배달하는 서비스 • 다른 사람에 의존이 불가피한 고령자를 위한 가정 돌봄서비스 • 이용 가능한 정규 대중교통이 없는 장애인을 위한 운송 서비스 • 장애인을 위한 일생생활 활동 지원 서비스, 정보 상담 서비스, 재택 의료 서비스, 무료 홈케어 서비스 등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를 돌보는 가족·종사자가 임시로 돌봄 대상자를 고령자 주거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 '레스필 플러스'(Respir Plus) • 노인의 원치 않는 외로움과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라달스 프로젝트'(Proyecto Radars) • 기본적인 영양 섭취를 보장하기 위해 균형 잡힌 건강식을 수혜자의 가정에 배달하는 서비스
돌봄 담당자 또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과 육아의 공동 책임을 바탕으로 한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긍정적이고 활동적이며 건강한 아버지' 프로그램 • 가사 노동과 돌봄 활동의 책임을 남성도 지게하고, 긍정적인 활동과 지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브레빠랏츠 뽀 뎀날 꾸라'(Preparats per tenir cuira) • 주택과 공동시설의 기능적 재활을 바탕으로 주민의 접근성·자율성·생활조건 등을 개선

돌봄 참여 주체	주요 지원 내용
전문 돌봄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가정의 현실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전문 돌봄 인력 교육도구 개발
일반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생활과 직장생활 조정 가이드 •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공감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을 제공 • 지식과 개인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여성에게 회의, 교육, 개인 성장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 • 근로자의 일과 가족,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 간의 균형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향상 •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다양한 규모와 분야에서 100개 이상 회사·조직의 네트워크 NUST • 매해 직장·가족·개인생활의 조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회사를 선정하여 상을 수여

‘바르셀로나 꾸이다’ 센터의 주요 역할

-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 안내와 지도·상담
 - 바르셀로나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 포털
 - 돌봄 관련 기관·단체·조합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
 -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인력 교육과 고용
 - 돌봄서비스 자영업자를 위한 법률 자문(노동권 등)과 종사자 지원 활동(정서적 지원 포함)
- 종사자 교육과 네트워킹
 - 전문가로 구성된 팀의 네트워킹과 지역 단체·기관 등과의 지속 교류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
 -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교육과 상호 교환이 가능하도록, 서로 다른 단체·개인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지원
 - 실무 그룹 운영, 상호 교환과 회의 등을 위한 공간 제공, 관련 기관 간 네트워킹 독려·지원
 - 유·무급 돌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워크숍 제공

http://ajuntament.barcelona.cat/dretssocials/es/noticia/obre-barcelona-cuida-un-nou-espai-al-voltant-de-lambit-de-la-cura_798935

<https://www.barcelona.cat/ciutatcuidadora/>

<https://ajuntament.barcelona.cat/dones/sites/default/files/documentacio/mgdcures.pdf>

<https://www.barcelona.cat/ciutatcuidadora>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민간 노하우 활용해 공립 미술관 집객력 강화

일본 오사카시 / 행재정·교육

일본 오사카시는 2021년 개관 예정인 ‘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의 운영에 민간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컨세션(내부 시설의 위탁 운영) 방식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s: 민간자본 활용) 수법을 도입할 예정이며,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집객력 강화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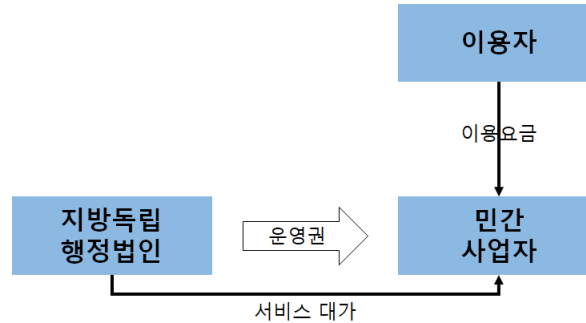
배경

- 시정운영 기본방침에 공공시설의 PFI 수법 활용 촉진을 명기
 - 특히 컨세션 방식의 PFI 수법 활용에 주목
 - 시는 PFI 수법을 검토해 적정하고 원활한 도입을 위해 2016년 3월 ‘오사카시 PPP(민관협력사업)/PFI 가이드라인’을 수립
 - 이에 더해 적극적인 검토와 최적의 사업 방법을 찾기 위해 2017년 3월 ‘오사카시 PPP/PFI 수법 도입 선도적 검토 규정’을 수립·시행
- 이에 따라, 시정부는 2017년부터 미술관 운영에 컨세션 방식의 PFI 수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 2018년 7월 19일 ‘미술관 운영에 컨세션 방식의 PFI 수법 도입에 관한 포럼’을 개최
 - 지금까지의 검토에서는 효과적인 집객 방법 모색 등 미술관을 둘러싼 과제 해결에 컨세션 방식의 PFI 수법 도입이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
 -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신설 중인 나카노시마(中之島) 미술관에 컨세션 방식의 PFI 수법을 도입할 계획

내용

- 민간에 기대하는 내용
 - 효과적인 홍보나 화제성 있는 이벤트 개최로 집객력 강화
 - 매력적인 서비스 시설 유치로 부가가치 향상
 - 민관연계의 지역 프로모션 전개

○ PFI 수법의 위탁사업 시행 방법



[그림 1] 오사카시 PFI 수법 위탁사업 개요

- 기본 구조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된 수입과 비용의 차액을 서비스 대가로 부담하는 것
 -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이전
 - 경영·운업을 민간사업자 측에 일체화하고, 운영·책임 체제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원활한 운영을 실현
 - 지방독립행정법인이 파견한 관장을 포함한 학예원이 전람회 업무를 담당하여 공공성 확보
- 민간사업자에게 위임하는 업무
 - 원칙적으로 작품 취득행위 이외의 모든 업무를 민간사업자에게 위임함. 다만 학예업무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파견한 학예원이 담당
 - 개관까지 준비기간에 필요한 업무는 민간사업자에게 업무 위탁
- 사업기간
 - 개관 후 10~15년, 민간사업자의 의향에 따라 1회(최대 15년간) 연장 인정
 - 민간사업자가 연장을 희망할 때는 종료 3년 전까지 연장 의향을 표명하고 지방독립행정법인과 협의하여 결정
- 미술품에 관한 사항
 - 소유권은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보유
 - 관리 책임 부담: 민간사업자가 소장품의 보관, 이전, 대출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보험 등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 대출 등은 파견된 관장이 최종판단
 - 기탁품은 기탁 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된 관장의 최종판단을 토대로 대출 가능

○ 구체적인 사업 시행 체계

- 기본적 체계
 - 새로 선임하는 관장을 비롯한 현재의 학예원은 민간사업자에게 파견되며, 그 밖의 직원은 민간사업자가 직접 채용
 - 파견된 관장·학예원과 민간사업자는 상호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 관장의 선임과 집행체제
 - 관장은 지방독립행정법인과 민간사업자의 합의로 선임
 -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관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함
 - 거버넌스 체제로서 자문 위원회 설치·활용 등

○ PFI 수법 도입에 따른 시장의 반응

- 시장의 관심은 높지만, 목표 입관자 수(64만 명), 수익 리스크 분담 등의 실현성에 불안을 느끼는 사업자도 존재
- 투자 중심의 사업자보다 업무 중심 사업자의 참가 의향이 많음
- 기간은 10~15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 관장의 권한과 운영방침을 조기에 명확히 결정하는 것을 희망
- 편익시설의 도면을 조기에 공시하고 미술관사업과 수익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수익 리스크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 공시 희망

<https://www.city.osaka.lg.jp/keizaisenryaku/page/0000415574.html>

<https://www.city.osaka.lg.jp/keizaisenryaku/cmsfiles/contents/0000415/415574/H29monkasyohoukoku.pdf>

<https://www.city.osaka.lg.jp/keizaisenryaku/page/0000009428.html>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아동·청소년 대상 행복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도 델리 NCT / 행재정·교육

델리 NCT(수도직할지) 공립학교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교육 프로그램을 공식 교과목으로 도입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함. 개인행복 추구를 목표로 하며, 소통과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기존 교육에서 부족한 아동·청소년 가치관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

정책적 배경

- 경제성장과 함께 입시위주 교육이 심화됨에 따라 인문학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
 - 아동·청소년이 성적 위주의 지식전달 교육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에 상시 노출
 - 이는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도 수반
- 행복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진행
 -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행복교육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
 - 2018년 상반기 각계각층의 전문가 40여 명이 참가하여 교육과정 연구개발
 - 담당 교사 대상으로 3일 동안 교육 연수를 제공하여 전문성 강화
- 작년 하반기부터 공립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 2018년 7월 달라이 라마의 행복교육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육 프로그램 착수
 - 1,000개의 이상의 지역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1~8학년 학생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

주요 내용

- 기존 단순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행복수업을 본격 시행
 - 교육은 매주 두 차례에 걸쳐 45분씩 자율적 수업형태로 진행
 - 성취문화 지양을 위해 기존 교육과정에 포함된 시험과 평가를 제외
 - 5분간의 명상으로 수업을 시작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
 - 인생 행복을 주제로 한 자아 성찰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여유 유도
 - 담당 교사의 지도 아래 교과서 기반의 스토리텔링과 체험활동으로 수업 진행
 - 담당 교사는 행복에 관한 질의응답을 하고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을 모두와 공유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토론식 수업형태로 진행

- 체험활동은 주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습득하는 콘텐츠로 구성
- 개인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자아확립과 부정적 감정 조절방법 등의 학습을 제공
 - 담당 교사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개인별 피드백 제공
- 교육 당국은 학교별로 담당 관리자를 임명해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확립
 - 담당 교사에게 지속적 유지보수 교육을 제공해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 2019년 4월부터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한 신규 교과서 도입
 - 노동·여가·의식주 등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학습 내용에 추가
 - 특히 기존 스토리텔링 부문이 취지에 무색하게 학생들의 중복적 답변만을 끌어낸다는 평가에 따라,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답할 수 있는 창의적 질문을 확대

기대효과

- 정신적 가치 중심의 교육으로 아동·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지식습득 위주의 기존 교육법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정서적 안정에 이바지
 - 도덕적 가치 탐색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성숙에 긍정적 영향
 - 정해진 답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고찰하는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
- 지역 사립학교나 다른 지역 교육기관의 인성교육 확대에 긍정적 영향 예상
 - 특히 관련 교육이 없는 지역 사립학교 단체는 공립학교의 행복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타당성을 확인하게 되면 도입할 것으로 기대



[그림 1] 행복교육 프로그램 개최식(2018년 7월)



[그림 2] 행복교육 프로그램 교과서

<https://www.hindustantimes.com/delhi-news/delhi-s-happiness-curriculum-begins-july-12-to-include-gratitude-wall-and-meditation/story-5PL5TzYkaKVYbsUZWYHWDJ.html>

<https://www.hindustantimes.com/delhi-news/in-a-class-for-happiness/story-O7D3oLdBAPlhT67rL8sL5L.html>

<https://www.hindustantimes.com/education/happiness-curriculum-in-delhi-schools-to-now-have-class-specific-book/story-Ji4EmHceXZJuact8v047bJ.html>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home/education/news/happiness-course-a-hit-in-delhi-govt-schools/article-show/68386630.cms>

<http://vikaspedia.in/education/education-best-practices/promoting-activity-based-learning-through-happiness-curriculum-a-delhi-government-initiative>

<https://www.youthkiawaaz.com/2018/09/expert-behind-happiness-curriculum-shares-how-things-are-changing-in-delhi-govt-schools/>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시민참여로 미래 25년 폐기물 관리대책 수립

캐나다 에드먼턴市 / 환경·안전

캐나다 에드먼턴市는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 수거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했음. 이에 따라, 폐기물 수거방법의 근본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두 단계에 걸쳐 시민과 이해관계자 등 관련자 전반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임. 각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미래 25년의 폐기물 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

배경

- 폐기물의 매립 비율을 낮추고 전환율을 높일 필요
 - 시의 폐기물 처리부는 규모와 수거에 중점을 두고 운영
 - 215,000개 단독 주택, 175,000개 공동 주택의 폐기물 처리, 상업시설 폐기물 처리, 유해물질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
 - 에코스테이션이라는 지역단위 폐기물 수집시설과 폐기물 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재활용 증대와 폐기물 감소를 추구
 - 지난 25년간 폐기물 관리센터의 분류·처리공정으로 폐기물을 매립지 밖으로 배출하는 프로그램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운영
 -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단독가구의 폐기물 전환율은 39%에 머물러 개선 필요성이 제기
 - 겨울철 퇴비화시설의 가동률이 낮아지는 것이 주요 원인
 - 2018년 평가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운영방법의 변화와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 졌다면 목표 수치였던 매립 폐기물 전환율 90%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

주요 내용

- 시정부는 폐기물 수거·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공개적이고 대대적인 의견수렴을 시작
 -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단계의 공공참여 행사를 열어 관련 주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
 - 1단계에서 주로 논의한 주제는 다음과 같음
 - 도로변을 이동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의 이동 및 폐기물 수거 방법
 - 녹색 수거함(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수거 여부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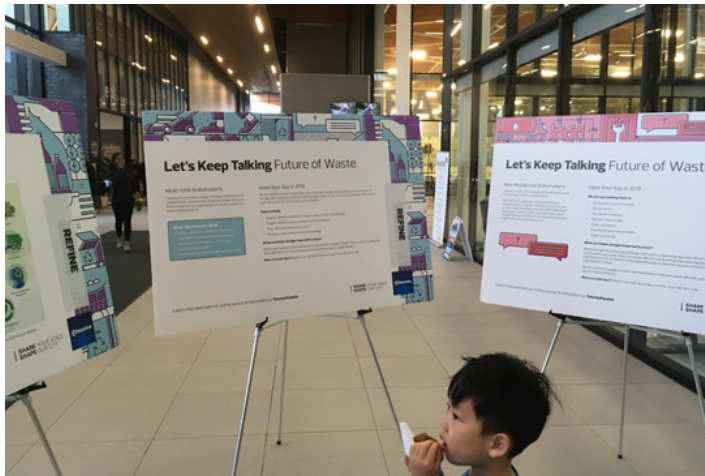
- 잔디와 낙엽 등 계절에 따라 배출되는 마당쓰레기의 수거 방법
 - 음식 쓰레기를 중심으로 한 쓰레기 저감·재사용 프로그램
 -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문제, 직물·섬유의 분리수거, 추가 분리수거 품목 등
 - 쓰레기 제로(Zero Waste) 정책 목표, 생산자 책임제 확대 등
- 폐기물 수거·처리방법의 다변화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공참여 프로세스를 추진
- 시정부는 모든 부문에서 폐기물 처리의 다변화를 확대하는 안을 제시
 - 관련된 모든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 공동주택 이해당사자, 비주거 지역 이해당사자, 시정부 관계자의 4가지 그룹별로 적합한 의견수렴 절차를 모색
 - 제안사항의 도입·실현에 예상되는 장벽은 무엇이며, 해결방법(인센티브 등)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함

[표 1] 에드먼턴시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의견수렴 절차 개요

의견수렴 주제	주요 대상	의견수렴 방법
주민	단독·공동주택 주민, 노인, 이민자, 장애인, 대학생, 에드먼턴 통찰력 커뮤니티	현장 공청회,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소셜미디어
공동주택 이해당사자	임대업주, 운영자, 관리인, 입주자 대표 회의	현장 공청회,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회의, 전화·이메일 인터뷰, 인터넷 뉴스
비주거지역 이해당사자	교육시설 운영자, 축제·이벤트 운영자, 상업 협회, 비영리 단체, 회사, 대형 공공공간 관리자, 폐기물 운반업체	맞춤형 워크숍, 전화·이메일 인터뷰, 온라인 설문, 그룹토의, 프레젠테이션
시정부 관계자	시정부 소속 직원, 폐기물 서비스업체 직원	현장 공청회, 미팅, 워크숍, 이메일 설문

- 공공참여 행사 의견수렴 결과, 대다수가 폐기물 처리방법의 개선 필요성에 동의
- 많은 시민이 에드먼턴이 폐기물 감축, 재활용, 매립 폐기물 전환의 선두주자 위치를 되찾기를 원함
 - 현재의 폐기물 처리방법과 시설 운영 현황, 매립률 등에 실망한 참석자도 많았으며,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폐기물 저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모든 참가자는 지속가능성의 책임을 나눠 가질 필요성을 강조하고, 폐기물 감소와 전환을 개선에 의지를 보임
 -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가장 관심이 있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폐기물 수거 절차를 쉽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 그 외 쓰레기를 소량 배출하는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 여름철 마당 잔디 쓰레기 수거 횟수 늘리기 등을 제안
- 비거주지역 이해당사자는 폐기물 수거공간의 협소함, 분리수거 주기 맞추기의 어려움, 담당 직원의 순환근무에 따른 교육의 어려움 등을 호소
- 폐기물 수거 직원은 폐기물 수거 원칙이 없음을 지적하고, 시민은 쓰레기 배출 규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높은 데에 비해 시의 홍보가 부족해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



[사진 1] 에드먼턴시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공공참여 프로그램 현장

- 2단계 공공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후, 미래 25년의 폐기물 전략을 제출할 예정
 - 1단계 의견수렴에서 도출된 결과를 시민에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 미래 25년의 폐기물 전략은 2019년 공공사업위원회와 시의회에 제출 예정

https://www.edmonton.ca/programs_services/documents/PDF/What_We_Heard_Report_Phase1_Fall2018.PDF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취약계층 거주지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

독일 베를린시 / 환경·안전

작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지한 독일 베를린시는 무더위나 폭우 등에 대비해 녹지를 늘리고 수자원 관리를 향상하는 등의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취약계층 거주지 위주로 시행하는 ‘기후적응 지원프로그램’(Klimaanpassung Förderprogramm)을 시작

배경

-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베를린의 2018년 여름은 기록적으로 덥고 건조했으며, 시민들도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 평균기온이 25도를 넘는 날이 55일에 육박했고, 강우량이 87.3mm에 그쳤으며, 가뭄으로 브란덴부르크 지역에서 많은 산불이 발생해 1,300만㎡ 이상이 피해
 - 2018년 독일의 ‘올해의 단어’로 빙하기(Eiszeit)의 반대말격 신조어 ‘열기’(熱期: Heiẞzeit)가 선정되어, 21세기 들어 심각해진 지구온난화 문제를 지적

주요 내용

- 기후적응 지원프로그램(이하 ‘KF’)
 - 기후변화에 따른 열파(熱波: heat wave), 건기, 호우 증가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
 - ‘베를린 에너지·기후보호 프로그램’(BEK: Berlin Energie-und Klimaschutz Progammm)의 하나로 올 4월에 시작
 - 지구별 녹지시설의 재개발·확장·연결, 기존 녹지·도로의 수자원 관리 혁신, 유휴토지의 환경친화적 개발, 분권화된 빗물 관리·경영 등의 여러 관련 프로그램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
 - 총 자금 규모는 240만 유로(31억 2천만 원)이며, 지역 행정본부·사무소, 공의 단체나 교회는 물론 일반기업과 공립기관에도 자금 지원
- 기후중립적·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존 계획에 KF를 추가
 - 2015~2020년 진행 중인 베를린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BENE: Berliner Programm für Nachhaltige Entwicklung)에 KF를 병행해 예산과 범위를 확대

- BENE는 기후 중립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베를린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 조치
- BENE의 목적은 경제 성장과 자원 보존의 조화이며, 지속가능하면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상업·공공부문의 CO₂ 감축을 지원
 - KF의 지원으로 원래 계획당 10만 유로(1억 3천만 원)였던 예산에 2만 유로(2,600만 원)가 추가
- BENE의 6번째 중점 사항인 ‘사회적 취약지역의 자연과 환경 개선’을 대상으로 KF를 병행
 - 빈곤, 실업, 녹지 부족 등 여러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집중된 지역의 주변 공간(반경 2km)의 생태학적 삶의 질 개선을 도모
 - 앞서 언급된 KF의 지원사업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BENE에는 KF에 없는 도시 녹지 분야(정원, 건물 외부·지붕 등의 녹색화)의 지원이 있음
 - 지원비의 최대 지급비율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소기업 65%, 중소기업 55%, 대기업 45%이며, 창업지원기금을 받는 기업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른 지원자에게는 사업 내용에 따라 50~100%를 지원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 지역 확인
 - 시정부가 지원하는 지리 데이터 카탈로그(FIS Broker)는 베를린시 지도에서 지원 가능지역과 자연환경 상태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표시
 - 주소를 입력하면 지원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berlin.de/senuvk/umwelt/foerderprogramme/bene/foederschwerpunkte/foederschwerpunkt-6-natur-umwelt-quartiere/>

https://www.berlin.de/senuvk/umwelt/foerderprogramme/bene/fileadmin/user_upload/Karte_Foederkulisse_ZIS_II_BENE_2017_12.pdf

https://www.berlin.de/senuvk/umwelt/foerderprogramme/bene/fileadmin/user_upload/documents/Foederschwerpunkt_6_-_Natur__Umwelt__Quartiere.pdf

<https://www.gruen-in-die-stadt.de/foerdercheck/berlin/bene/>

https://www.berlin.de/senuvk/klimaschutz/bek_berlin/foerderprogramme/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법 채택 ‘눈앞’

미국 하와이주 / 환경·안전

미국 하와이주는 주 내 모든 음식점, 호텔, 커피숍 등의 상점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의 채택을 앞두고 있음. 관광수입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주정부는 앞으로 상점이 아닌 일반가정의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제재까지도 검토 중

배경: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의 제재 필요성

- 하와이주에서 사용 중인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약 95%가 한 번 사용 후 폐기되고 있음(2018년 12월 기준)
 - 하와이주에서는 지금껏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일회용 컵·접시 등을 널리 사용
 - 많은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 외의 주문에도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
 -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한 번 쓰고 버리는 습관이 일상화
 - 플라스틱 일회용품은 대형마트에서 싼값에 판매 중이고 판매량도 많은 편
 - 대부분 가정과 사무실, 학교 등에서도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
 - 이와 같은 이유로, 높은 수준의 과태료나 벌금 없이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
 - 특히 일반주민 중에 정부의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움직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적은 것이 문제라는 시각



[그림 1] 하와이주 오아후섬 소재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품

주요 내용: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예정

- 하와이주가 8개 섬 내 요식업체의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채택을 앞두고 있음
 -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식당 등의 영리업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최초
 - 지난해 8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규제 법안보다 더 강력한 규제
 - 해당 법안(상원법안 522호)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병·빨대·접시·포장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 사용의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
 - 법안 비준 시 2021년 7월부터 플라스틱 일회용 식기류를 구입·사용·배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할 방침
 - 적용 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식당, 호텔, 커피숍(프렌차이즈 포함)으로, 하와이섬 전역의 관광지 대형 호텔도 포함
 - 앞으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더 강력해질 예정
 - 2023년부터 주 전역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또한, 오는 2025년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체 외에 일반 가정의 일회용품도 사용을 규제할 방침



[그림 2] 하와이주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집된 플라스틱 일회용품

- 반면, 주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상점주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
 - 한편에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관광지에서 영업 중인 상당수 레스토랑과 상점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
 -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해 한 차례 법안 통과를 시도했다가 좌절된 후 재심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상점주 등의 우려가 큼

- 지난해 법안 통과 좌절의 가장 큰 이유가 레스토랑·커피숍 등의 상점주가 규제 시행 이후 제품 가격 상승으로 고객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때문
- 법안 통과 3년 이후에는 모든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
 -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하와이주 8개 섬에 있는 모든 상점은 1년 이내에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을 50% 이하로 줄여야 하고, 3년 뒤에는 전면 금지
 - 또한, 모든 상점주는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 현황과 감축 계획을 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주정부에 제출해야 함
- 법안을 위반한 업체·상점주에는 최소 500달러(60만 원)에서 최대 1만 달러(1,2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

https://www.huffpost.com/entry/hawaii-plastic-food-containers-ban_n_5c91cdce4b0f7ed945d8c13
<http://www.hawaiinewsnow.com/2019/02/09/hawaii-lawmakers-chewing-ban-plastic-utensils-bottles-food-containers/>
<http://bigislandnow.com/2018/11/21/hawaii-nei-marine-debris-removal-project-continues/>
<http://bigislandnow.com/2018/08/09/hawaii-to-receive-over-230000-for-marine-debris-cleanup/>
<http://bigislandnow.com/2018/10/01/hwf-matson-ship-another-container-to-nets-to-energy-program/>
<http://bigislandnow.com/2018/04/23/864-pounds-of-trash-removed-at-manuka-nar-cleanup/>
<http://h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30601015>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

일터 떠날 권리 보장 등 폭염대책 시행

프랑스 보르도市 / 환경·안전

여름철 낮 최고기온이 40℃를 기록한 사례가 있는 등 매우 더운 도시 중 하나인 프랑스 보르도市는 꾸준한 캠페인과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시설물의 안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 권장, 폭염 시 일터를 떠날 권리 보장 등의 폭염대책을 시행 중

배경

- 보르도는 근래에 여름철 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여름철 더위가 심한 도시
 - 매우 건조한 기후로 내리쬐는 태양을 피하는 정도로 피서를 해왔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시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 프랑스는 대부분의 업무공간·주택 등에 에어컨과 같은 냉방시설이 전무
 - 낮에는 해를 차단하기 위해 덧창을 닫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 프랑스의 일반적인 여름나기 생활 패턴
 - 하지만 폭염이 심할 때는 뜨거운 열기를 머금은 건물이 밤에 열을 뿜어내면서 열대야 현상이 발생해 이마저 여의치 않음
- 시정부는 각종 캠페인과 공공대책을 적극 활용해 폭염 대비
 - 해마다 대책을 보강하는 중이며, 특히 노약자계층을 위한 대책에 집중

주요 내용

- 2003년의 기록적인 폭염 이후 프랑스 정부는 폭염주의보를 4단계로 나누어 발령
 - 1단계(초록색): 6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통상적인 여름 날씨
 - 2단계(노란색): 더위에 주의해야 하는 날씨
 - 3단계(주황색): 폭염주의보, 각 도의 도지사 권한으로 발령
 - 4단계(빨간색): 국가적 재난으로 총리 권한으로 발령하고, 최대 대책반을 가동
- 각종 폭염 대비 공공기관의 연락망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노년층 자립센터 플랫폼에서 폭염주의보 발령 시 24시간 전화상담을 가동하며, 폭염 인포서비스 센터도 무료전화를 운영

- 시청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수영장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안내
 - 극장, 쇼핑몰 등 에어컨이 설치된 시설물의 위치, 음수대 위치 등도 제공
- 폭염을 틈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수를 비싸게 파는 불법 방문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권장 캠페인 시행
- 실내외 근로자 대상 폭염대책 수립, 폭염 시 일터를 떠날 권리 보장
 - 건설현장 인부 등 외부 작업자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을 중단할 것을 근로기준법으로 정함
 - 외부온도 28도 이상이면 근로자는 작업장을 떠날 권리가 있음
 - 실내 근로자도 실내 기온이 30도 이상이면 사무실을 떠날 권리 보장
 -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동료의 이상증세 목격 시 적극 개입하여 그들로 피신하고 음료를 권하는 등 1차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
- 폭염 시 행동요령 캠페인
 - 목이 마르지 않아도 상시 물을 마시고(하루 1.5리터 권장), 입맛이 없더라도 평소의 식사량을 유지할 것
 - 야간에는 창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들이고, 낮에는 창문과 덧창을 닫아 태양광을 차단
 - 집안에서 가장 시원한 곳에 머무를 것, 젖은 수건 등으로 신체를 적실 것,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할 것
 - 가장 더운 시간에는 외출을 삼가고, 대형 상가 등 냉방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지낼 것
 - 정기적으로 주변 사람과 연락하여 근황을 주고받으며, 필요시 도움을 요청할 것

<http://nouvelle-aquitaine.drdjscs.gouv.fr/sites/nouvelle-aquitaine.drdjscs.gouv.fr/IMG/pdf/plancanicule2016.pdf>

<https://www.nouvelle-aquitaine.ars.sante.fr/plan-canicule-et-chaleurs-extremes-2018>

<https://www.chu-bordeaux.fr/Espace-m%C3%A9dia/Actualit%C3%A9s/Information-Plan-Canicule-et-chaleurs-extr%C3%A4mes/>

https://solidarites-sante.gouv.fr/IMG/pdf/affiche_caniculetravailleurs_bd_40x60.pdf

<https://solidarites-sante.gouv.fr/sante-et-environnement/risques-climatiques/canicule>

<http://www.gironde.gouv.fr/content/download/39622/274252/file/Plan%20Orsec%2033%20Canicule%202018.pdf>

<http://www.gironde.gouv.fr/Politiques-publiques/Securite/Securite-sanitaire/Canicule>

<http://www.bordeaux.fr/p9584/fortes-chaleurs-et-plan-canicule>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공유차량도 택시처럼 운행권 의무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 도시교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는 택시업계와 차량공유서비스업계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유 차량도 택시와 같이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Public Service Vehicle Licence)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업계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차량공유서비스의 발전도 함께 모색

배경: 택시-차량공유서비스 업계 갈등 심화

- 그랩(Grab), 마이카(MyCar) 등 차량공유서비스 논란 지속
 - 2017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차량공유서비스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영업 확대를 공식적으로 승인
 - 택시기사들은 차량공유서비스를 불법 택시영업으로 규정하고, 2018년 10월 200여 명의 택시기사가 말레이시아 재무부 앞에서 항의집회 개최
 - 말레이시아 정부는 차량공유서비스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택시와 같은 조건을 적용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
- 말레이시아 정부,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 취득 의무화
 - 말레이시아 정부는 택시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고 차량공유서비스업계 운영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1일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 취득 의무화 발표
 - 육상교통위원회(SPAD)는 모든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가 7월 11일까지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을 취득하고, 공유차량 등록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할 것을 발표
-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 개요
 - 말레이시아 영업용 면허증은 화물 운행권(Goods Driving License)과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의 두 종류로 구분
 -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은 사람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면허
 - 운행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는 건강검진, 6시간의 운전 연수, 차량공유서비스용 자동차보험 가입, 3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정부 지정 차량점검정비소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취득 가능
-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 접수 세부내용 변경 등 지연 발생
 - 운행권 세부조건 변경 등의 사유로 지난해로 예정되었던 접수가 올 4월 1일부터 시작

- 그랩에 등록된 운전자 약 25만 7,000명 가운데 75%는 시간제 근무자로 운행권 취득을 위해 별도로 휴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시간제 운전자에게 적합한 자동차보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
- 또한, 정부 지정 차량점검정비소가 말레이시아 전역에 40여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7월까지 운행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
- 그랩 측, 절차 간소화와 접수기간 연장 제안했지만 정부는 거절
 - 그랩 측은 디지털 운전 연수, 디지털 자동차 점검 등 디지털을 활용한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 발급 개선안을 제안
 - 또한, 공유차량서비스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개발을 위해 말레이시아 국립은행(Bank Negara Malaysia) 등과 협업할 예정임을 밝히고 시행 시기 조정을 건의
 - 하지만 록 슈 포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기한 연장은 없다”며 “3개월 내 대중교통서비스 운행권을 접수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
- 정부, 택시업계와 차량공유서비스업계 두 마리 토끼 잡기
 - 5월 14일 그랩 운전자 말레이시아 협회 회장은 기간 연장을 고려할 것을 재차 제안했지만, 17일 교통부는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대신 6시간 운전연수를 온라인 연수로 대체하겠다고 발표
 - 언론은 오는 7월부터 그랩 운전자 절반이 운행권 취득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차량공유서비스업 종사자 숫자를 줄이고 택시업계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 한편, 정부는 테크닉 스타트업의 재정지원을 발표했으며, 그랩과 말레이시아 항공과의 협약 체결, 그랩과 공동으로 얼굴인식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며 차량공유서비스 발전 방안 모색
 - 택시업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택시업계의 불만을 해결하고, 미래 산업에 중요한 차량공유서비스업계 발전을 지원하며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

<https://www.lowyat.net/2019/186212/grab-and-malaysian-drivers-can-now-take-psv-classes-online/>

<https://cilisos.my/half-of-malaysian-e-hailing-drivers-might-be-out-of-work-come-july-2019/>

<https://www.newsarawaktribune.com.my/regulating-e-hailing-service-at-a-snails-pace/>

<https://www.grab.com/my/press/consumers-drivers/the-spirit-of-the-regulation/>

<https://www.grab.com/my/blog/driver/pursuing-clarity-on-regulations-part-2/>

<https://www.nst.com.my/news/nation/2018/10/422017/taxi-drivers-threaten-hit-streets-over-grab-monopoly>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엄격한 차량 운행제한으로 대기질 개선

프랑스 파리시 / 도시교통

프랑스 파리시는 2012년부터 대기오염 감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내놓았음. 차량의 환경등급에 따라 파리 공기품질증(Crit'Air)을 발급해 도심운행을 통제하고, 자전거·보행자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정책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스쿨존에서 대기오염지수가 기준치를 넘는 날이 2012년 66%에서 26%로 감소하는 등 그 효과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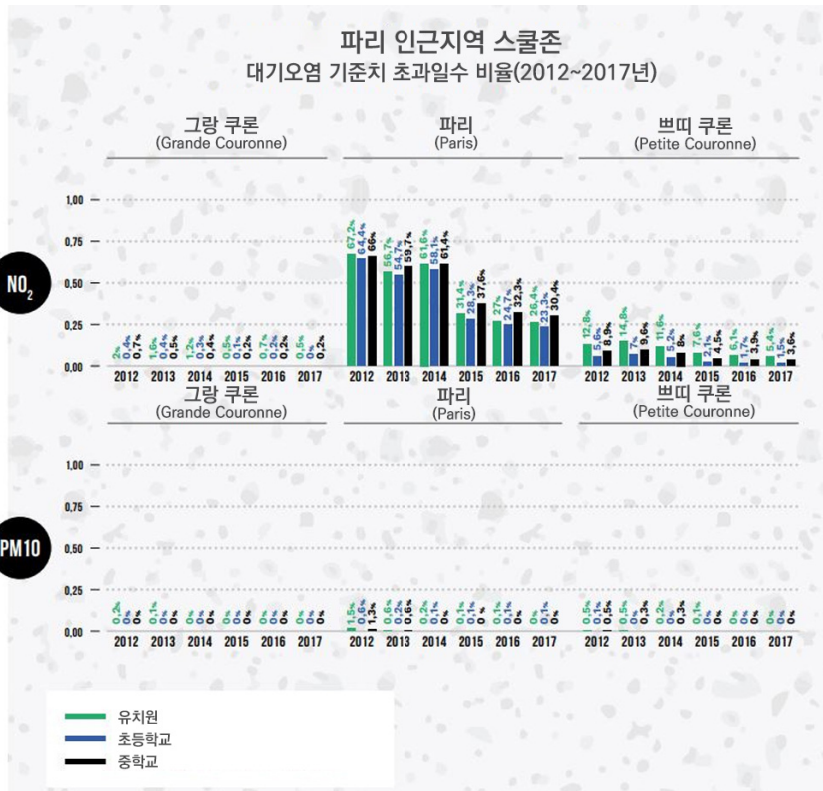
파리시 대기오염 방지대책 개요

-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자동차 교체에 재정지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발전을 위한 도로 개선사업 등 대기오염 감소·대기질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지속
 - 자전거 도로 확충과 관련 인프라 정비
 - 양방향 자전거도로 확장, 총 길이 200km의 자전거도로 계획
 - 전기스쿠터, 킥보드, 자전거 관리체계 정비와 정류장 설치
 - 보행자 우선 구역(Zone de Rencontre) 설정
 - 보행자가 무조건 우선인 구역으로 자동차 운행은 시속 20km로 제한
 - 예전의 거주자 우선통행 구역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현재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 운영 중
 - '30 Zones' 감속 운행 지역
 - 파리시의 중심 대로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도로의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
 - 도시 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과 공해를 방지하려는 목적
 - 2017년 말 기준, 파리 도로의 약 45%가 시속 30km 제한운행을 시행 중이며, 2020년에는 전체 도로의 운행 속도를 이 제한 속도에 맞추려 노력 중
 - 그 외 보행자 도로 확충, 차량 제한 구역 설정 등 시행
 - 센강가와 샹젤리제 거리 주변을 보행자 도로로 만들고, 파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없는 날>을 시행해 '숨쉬는 파리'존을 확대할 계획
- 모든 차량에 파리 공기품질증을 발급하고 진입 도로를 제한
 - 차량의 연식과 성능에 따라 환경오염지수 등급을 부여하고 색깔별로 표시하는 증을 발급해 자동차 앞유리에 붙이도록 권장

- 환경변화·연대부(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Solidaire) 홈페이지에서 차량등록증으로 신청하며, 우편접수도 가능
- 한 번 발급받으면 차량 운행기간 내내 유효하며, 장당 3.62유로(4,700원)
- 등급에 따른 차량 도심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며, 2019년 7월부터는 뱅센 숲과 블로뉴 숲의 차량 진입이 제한
- 7개의 파리 대광장(7 Grandes Places) 정비계획
 - 차량을 줄여 도시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파리의 주요 광장(바스티유, 페트, 감베타, 이탈리아, 마들렌, 나씨옹, 팡테옹 광장) 정비계획 설립
 - 광장의 혼잡을 줄이고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
 - 자전거·도보·대중교통으로 광장에 접근하기 쉽도록 주변 도로를 정비
 - 광장의 화단과 녹지대 조성, 건축적·역사적 가치부여
 - 다양한 스포츠, 문화·예술 활동, 여가활동 관련 시설 신설·정비
 - 2015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시민, 관련단체, 기관의 참여로 타당성 조사를 시행 후 광장별로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공사를 진행

정책 효과

-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스쿨존의 대기오염지수가 기준치를 넘는 날이 급격히 감소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스쿨존의 대기오염지수가 기준치를 넘는 날이 총 66%에서 26%로 감소했다고 발표
 - 2019년 3월 말 ‘국립 대기질 개선·예방협회’(Association Respire)가 발표한 자료로, 2012~2017년의 변화
 - 2012년 이후 대기의 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 보이며 특히 2014년을 기준으로 그 성과가 현격히 가시화됨
 -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선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10년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이 이산화질소 발생량의 66%, 미세먼지 발생량의 56%를 차지



[그림 1] 파리 인근지역 스쿨존 대기오염 기준치 초과일수 비율(2012~2017년)

<https://www.paris.fr/stoppollution>

<https://www.certificat-air.gouv.fr/>

<https://www.paris.fr/actualites/trottinettes-velos-scooters-la-ville-va-mieux-reguler-les-operateurs-de-free-floating-6604>

<https://www.paris.fr/actualites/zones-30-comment-ca-marche-5507>

<https://www.airparif.asso.fr/pollution/differents-polluants#evolution>

<https://www.respire-asso.org/pollution-de-lair-dans-les-ecoles/>

김 나 래 통신원, naraetravaux@gmail.com

전기차 공유서비스 도입 성공적...인프라 확충 기대

싱가포르 / 도시교통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과 경제발전협의회(Economic Development Board)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통문제와 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BlueSG)를 2017년부터 도입하였음. 최근 이 공유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충전시설의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이바지할 것을 기대

배경

- 정부 주도의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 시작
 - 싱가포르 플라이어(Singapore Flyer)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 프로그램 추진 기념식(2017년 12월 12일)에서 교통장관 콰 분 완(Khaw Boon Wan)이 발표
 - 두 가지 대표적 이유를 언급하며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의 적극 추진을 표명
 - 환경 친화성: 화석 연료 기반 자동차를 대체할 배출가스 제로(Zero-Emission) 전기 배터리 사용
 - 자원의 효율성: 자동차의 소유가 아닌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자원의 비효율성 최소화

주요 내용

-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는 민간위탁 형태로 추진
 - 2014년 13개의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해 ‘볼로르 그룹’(Bollere Group)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
 - 볼로르 그룹은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에 4,000대의 전기자동차로 6년간 성공적인 공유서비스를 시행 중
 - 싱가포르의 인구밀도와 렌터카 이용 증가세(2011~2016년 250% 이상 증가)를 고려하면, 파리보다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
 - 파리시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는 차량 1대당 하루 평균 7번 공유

- 2017년 BlueSG라는 이름의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시작
 - 2018년 3월 기준 현재 105대의 전기차, 42개의 충전소를 운영 중
 - 최근 기록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공유횟수는 2만 번 이상이고, 등록회원 수도 9천 명까지 증가
 -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 후 이용하는 형태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곳에서만 픽업과 반납이 가능
- BlueSG는 두 가지 형태의 등록제로 운영 중
 - 매달 15싱가포르달러(13,200원)의 정기 사용료를 내고, 실제 사용시간에 따라 매분당 33센트(293원)의 이용료를 추가 지불
 - 매달 정기 사용료 없이 전기자동차 사용 실제 시간에 따라 매분 50센트(440원)의 이용료를 지불
- 싱가포르는 볼로르 그룹과 협업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
 - 2020년까지 1,00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000개, 충전소 500곳을 구축할 예정
 - 이 중 20%(400개의 충전 장치)를 공공장소에 설치할 예정이고, 80%는 주거 지역에 설치할 계획



[그림 1] 싱가포르의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 BlueSG

기대 효과

- 만약 싱가포르의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시가 되는 것

-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의 시행으로 차량 이용률을 낮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 것을 기대
 - 또한, BlueSG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해줄 것

<https://www.bluesg.com.sg/about-us>

<https://qz.com/1156245/bluesg-to-reduce-private-cars-singapores-promoting-electric-car-sharing-instead/>

<http://www.straitstimes.com/singapore/transport/bluesgs-shared-cars-rented-over-20000-times-in-3-months>

이 은 주 통신원, jelia1130@gmail.com

안전·다양·스마트한 도시 만드는 23가지 실행계획

일본 도쿄都 / 도시계획·주택

일본 도쿄都는 도쿄 올림픽의 성공과 도쿄의 미래상 명료화를 위해 안전한 도시(세이프시티), 다양성을 지닌 도시(다이버시티), 스마트한 도시(스마트시티)라는 ‘3가지 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최근 이 계획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정책의 실행 현황·결과를 바탕으로 한 23가지 2019년 실행계획을 공개

배경

- ‘도민 우선의 「새로운 도쿄」: 2020년을 겨냥한 실행계획’ 수립
 - 도쿄도가 2016년 12월에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성공과 도쿄의 미래상 명료화를 위해 수립한 4개년(2017~2020년) 계획의 2019년 세부 실행계획
 - 새로운 도쿄는 크게 3가지 도시를 목표로 설정
 - ① 안심하고 안전·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이프시티’
 - ②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다양성을 지닌 ‘다이버시티’
 - ③ 환경선진도시, 국제금융·경제도시를 추구하는 ‘스마트시티’
 - 2019년도의 세부 실행계획으로 이 3가지 도시 개념 실현을 위한 23가지 정책을 정하고, 되도록 수치화한 정책 목표를 설정

주요 내용: ‘3가지 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 세이프시티: 자연재해 대응력 향상 등 도민 안전을 지키는 역량을 강화
 - 전신주 지중화, 건축물 내진대책, 목조주택 밀집지역의 건축물 불연화, 저지대 내진·내수대책 등으로 지진에 강한 마을 만들기
 -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의 연계를 바탕으로 방재력 향상
 -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해 종합적인 토사 재해 대책을 추진
 - 도시 인프라 유지 관리의 효율화·고도화로 도시 인프라의 수명을 늘리고 개선
 - 테러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 사이버 공간의 위협 대처, 지역 범죄 대책 등을 수립·시행해 마을의 안전을 확보
 - 좋은 주거환경 형성, 빈집 활용, 주택 안전망 기능 강화로 마을의 활력 창출

- 다이버시티: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가운데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도쿄 실현
 -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혼인부터 육아까지 체계적 지원, 대기 아동 해소, 방과 후 활동 공간 확충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도쿄도 아동 학대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
 - 요양 서비스 기반 정비, 치매 대책 수립, 요양 인재 확보·육성·정착 등의 대책을 강화해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실현
 - 주민 모두가 충분한 의료 혜택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암 환자의 치료와 일 양립 지원,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의료제공체계 정비, 의료 인재 확보·육성, 생활습관병 대책 등
 -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일과 생활의 균형 확보, 여성·고령자·젊은 층의 취업 촉진, 비정규 고용 대책, 지역 상황을 고려한 고용·취업 대책,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쾌적한 출퇴근 지원 등
 - 장애인이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무장애(Barrier-free)화 추구, 자원 봉사자 육성과 공조사회 실현, 공생사회 실현 등
 -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사회 만들기
- 스마트시티: 도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
 - 에너지 절약 대책, 도시 조명의 LED화,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촉진,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 스마트 에너지 도시 실현
 - (가칭)‘Clear Sky 서포터’(ClearSky サポーター) 제도를 창설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노력
 - 민간의 노하우와 자금을 공원 정비 등에 활용해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창출·보전
 - 민관협력 금융 프로모션 조직 설립, 창업지원 강화 등으로 국제금융·경제도시 실현
 - 대중교통 보완, 차세대 교통시스템 도입, 도쿄권의 물류기능 강화, 수도권외의 공항 기능 강화,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등 교통·물류 네트워크 형성
 - 도쿄의 매력 전달과 관광 자원 개발, 소비 확대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 배려 정책, 다언어 대책 등을 추진해 국제 관광도시를 조성
 -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겨냥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시행, 모든 사람의 창조적 예술 문화 활동 지원 등으로 문화예술을 진흥

<https://www.seisakukikaku.metro.tokyo.jp/basic-plan/actionplan-for-2020/action/pdf/zentai.pdf>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456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5월 20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

